

채점 기준의 95%

무엇이 나오고 어떻게 푸는지를 알리는 최강의 실전 가이드

2008 년 이후로 연고대 논술의 출제 유형은 매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표본만 존재한다면, 합격하는 답안들이 공통적으로 갖춘 ‘정답의 조건’ 또한 밝혀낼 수 있겠죠? 논술실록은 합격자 답안 간 95%에 달하는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 기출시험의 모든 채점 포인트를 복원하였고, 나아가 합격자들의 방법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오직 논술실록만이 보여드릴 수 있는 기출 해제와 방법론을 통해 지문을 읽으면 어렵고, 답을 쓰자니 막연한 논술에 쉽게 다가가세요.

논술실록의 **해제편**은 합격자 복원 답안 간의 95%의 유사성을 밝혀 **채점 기준**을 복원합니다. ‘2011 학년도 연세대 사회계열’ 의 ‘1 번 문제’ 해제를 공개합니다.

(논술실록 본문, 207~217 페이지)

2011 학년도 사회계열 해제(解題)

Actual Fight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나타낸다.
이 관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

2011 학년도 사회계열의 1 번 비교분석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세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입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2. 세 제시문은 같은 입장의 틀 속에서 서로 다른 근거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근거들과 주장들을 모두 파악하여 서술하라.

채점 Point 1

세 제시문의 공통점을 밝힘

세 제시문의 올바른 공통점 :

(과학적 탐구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제시문들의 공통점은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우성]

세 제시문의 공통점은 인과론적 과학적 탐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반적인 과학적 탐구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 따라서 세 제시문들이 모두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부정적이기 때문에 인과론적 과학적 탐구에도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목동현]

제시문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인과관계를 통한 과학적 탐구에 대해 논의한다. 세 제시문은 인과관계의 설정에 대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정민영]

제시문 <가>와 <나>, <다>는 공통적으로 과학적 탐구 과정의 인과관계 도출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김민우]

제시문 (가), (나), (다)는 각각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제시문 (가), (나), (다)의 공통점은 인과관계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것이다.** [김우열]

다섯 합격자가 모두 완전히 동일하게 서술한 반면, 광기연의 답안은 약간 다르다.

제시문<가>, <나>, <다>는 모두 **인과관계에 기반한** 과학적 탐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과학적 탐구 자체에 대한 인식**, 인과관계에 기반한 과학적 탐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 인과관계에 기반한 연구를 대신할 대안적 탐구 방안에 대해서 이견을 보인다.[광기연]

광기연은 문제가 제시한 ‘과학적 탐구’ 라는 용어가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한다. 즉 [인과관계에 기초한 과학적 탐구] 와 [과학적 탐구] 가 다르다는 점을 짚어낸 것이다. 따라서 비교를 전개해 나가면서 내용이 소폭 달라지게 되는데, 해제를 이어나가면서 확인해 보자.

Tip 제시문의 공통점을 밝힐 때는 글의 첫 부분에 그 공통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수많은 지원자들과 그에 따른 수많은 답안지들을 채점해야 하는 학교 측에서는, 근거를 먼저 장황하게 늘어놓고 이후에 자신이 하려는 말을 하는 답안보다, 먼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던져주고 그에 관한 근거를 풀어가는 식이 답안이 더 눈에 들어오고, 읽기도 편하기 때문이다. 즉, ‘논증 구조의 길’을 제시한 후 이를 따라가는 것이 답안 작성자와 채점자 모두가 읽기가 편하다.

채점 Point 2

세 제시문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각각 그 요지를 밝힌 후,

비교 준거를 도출하여<가>,<나>,<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

앞서 공통점을 제시했으니, 합격자의 답안들을 바탕으로 차이점을 추려 또 표로 정리해 보자.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인과관계의 존재여부 (준거 1)	존재하지 않음 [1] 근거 : 단지 지속적 경험에 의한 착각에 불과하기 때문	존재함, 그러나	존재함, 그러나
인과관계 탐구의 필요성(준거 2)		존재하지만 탐구할 필요가 없음 [2] 근거 : 무한한 정보(페타바이트)의 시대에는,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이므로, 굳이 인과관계를 규명해 내지 않아도 상관없다.	
인과관계의 탐구가능성 (준거 3)			존재하지만 탐구할 수 없음. [3] 근거 :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인과관계만이 존재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제 3의 변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우리의 정보는 언제나 불충분하며, 무수히 많은 원인 중에서 인과관계를 되짚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 준거에 따른 여섯 가지 입장이 모두 세부포인트이며,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또한, 주장만 파악하였다고 답안을 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기 마련, 제시문들이 어떻게 그러한 주장을 도출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도 반드시 서술해야 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같으나, 그 이유에 관해서는 차이점이 있다. 우선 (가)는 사건의 원인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감각으로는 원인을 포착할 수 없고, 선후관계의 분석도 개연성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필연성이라고 말할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험이 축적되어도 마찬가지로 때문에 우리는 인과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의 주장이다. 반면에 (나)는 인과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페타바이트 시대에는 방대한 통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패턴만 알게 되면 사건을 분석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인과론적인 분석은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다)는 사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원인의 수가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건의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단지 가설적 원인의 확인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과에 대한 사실의 확인일 뿐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라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다)의 입장이다.[경우성]

- 우선 (가)는 사건의 원인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감각으로는 원인을 포착할 수 없고, 선후관계의 분석도 개연성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필연성이라고 말할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험이 축적되어도 마찬가지로 때문에 우리는 인과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의 주장이다. [1+ 1 근거]
- 반면에 (나)는 인과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페타바이트 시대에는 방대한 통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패턴만 알게 되면 사건을 분석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인과론적인 분석은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2+ 2 근거]
- 는 사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원인의 수가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건의 원인을 단정 짓는 것은 단지 가설적 원인의 확인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과에 대한 사실의 확인일 뿐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라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다)의 입장이다.[3+ 3 근거]

그러나 제시문들이 과학적 탐구에 비판적인 이유는 각각 다르다. 제시문(가)와 (다)는 인과론적 탐구로써는 진실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에 비판적이다. 제시문 (가)는 인과관계가 논리나 이성, 그리고 감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제시문 (나)는 직접 과학적 탐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구할 필요 없이 상관관계만으로도 통계 알고리즘이 파악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시문 (다)는 하나의 인과관계만으로는 결과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한데,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학적 탐구는 모든 원인을 다 밝힐 수 없으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목동현]

- 제시문 (가)는 인과관계가 논리나 이성, 그리고 감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 1 근거]
- 반면 제시문 (나)는 직접 과학적 탐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구할 필요 없이 상관관계만으로도 통계 알고리즘이 파악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2]
- 제시문 (다)는 하나의 인과관계만으로는 결과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한데,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학적 탐구는 모든 원인을 다 밝힐 수 없으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3+ 3 근거]

우선선발 합격자인 만큼 세부 포인트를 놓칠 수 있다. 2의 근거에 대한 서술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 다음 순서인 광기연을 맨 마지막에서 다루도록 하고, 우선 정민영으로 넘어가 보자.

다만 세 제시문은 인과관계 설정에 부정적인 이유에서 각각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제시문 <가>에 따르면 현상의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우연적이거나 근거가 없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인과관계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갖는다. 경험이 아무리 축적된다 해도 대상의 존재만을 추리할 수 있을 뿐, 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 제시문 <나>에서 인과관계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현대의 방대한 데이터와 진보된 기술은 통계의 수치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산출한다. 이에 따른 둘 이상의 대상 간의 상관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굳이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제시문 <다>에서는 현상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라 딱히 짚어낼 수 없다. 인간의 지식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인을 유추함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못하다. 다양한 원인들의 결과로서 현상이 발현하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는 마치 다대일 대응 함수와 같다. 원인들을 정의역이라 하고, 결과를 치역이라 했을 때, 인과관계를 밝혀 치역으로부터 정의역을 복원해 내는 역함수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정리하면, 인과관계 규명 가능 여부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이견들이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 제시문 <가>에서 인과관계란 아예 밝혀낼 수 없는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밝혀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일부 밝혀낸다 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들은 각각 인간 이성의 한계, 방대한 데이터가 만드는 상관관계의 유용성, 그리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수많은 잠재적 변수들로부터 기인한다.[정민영]

- 우선, 제시문 <가>에 따르면 현상의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우연적이거나 근거가 없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인과관계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갖는다. 경험이 아무리 축적된다 해도 대상의 존재만을 추리할 수 있을 뿐, 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1+ 1 근거]
- 제시문 <나>에서 인과관계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현대의 방대한 데이터와 진보된 기술은 통계의 수치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산출한다. 이에 따른 둘 이상의 대상 간의 상관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굳이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다.[2+ 2 근거]
- 제시문 <다>에서는 현상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라 딱히 짚어낼 수 없다. 인간의 지식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인을 유추함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못하다. 다양한 원인들의 결과로서 현상이 발현하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이는 마치 다대일 대응 함수와 같다.

원인들을 정의역이라 하고, 결과를 치역이라 했을 때, 인과관계를 밝혀 치역으로부터 정의역을 복원해 내는 역함수를 만들어 낼 수 없다. [3+ 3 근거 + 배경지식에 의한 부가서술]

[+] 정리하면, 인과관계 규명 가능 여부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이견들이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 제시문 <가>에서 인과관계란 아예 밝혀낼 수 없는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밝혀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일부 밝혀낸다 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들은 각각 인간 이성의 한계, 방대한 데이터가 만드는 상관관계의 유용성, 그리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수많은 잠재적 변수들로부터 기인한다. [차이점에 대한 요약 정리로서 비교 마무리]

정민영은 **배경지식의 올바른 사용의 예시**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더러, 비교문의 끝 부분에 간단하게 요약정리를 제시함으로써 전체 논지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배경지식의 올바른 사용의 예시는 바로 다음 합격자인 김민우에게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제시문 <가>는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연달아 일어났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이룬다고 파악하는 것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감각과 이성을 통한 추론으로는 인과관계의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의의 두 사건이 우연한 계기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으며, 전혀 연관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들을 원인-결과로 묶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사건들을 수없이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선행하는 사건이 반드시 후행 사건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반면 <나>는 인과관계의 파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는 인과관계의 파악이 불필요하며,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패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무한한 정보가 주어진 페타바이트 시대에서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는 곧 인과관계와 같다. 예전에는 인과모델을 통해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연결했다면, 페타바이트 시대에는 데이터 패턴이 이루는 상관관계 그 자체를 인과관계로 정의해도 되는 것이다. 이는 이항분포 $B(n,p)$ 에서 n 의 값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 $N(np,npq)$ 로 근사되는 원리와 같다.

<다>는 인과관계의 파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나>와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다>는 결과가 원인과 일대일 대응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의 추론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복잡계 이론이나 나비효과 이론과 같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원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민우]

- 제시문 <가>는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연달아 일어났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이룬다고 파악하는 것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감각과 이성을 통한 추론으로는 인과관계의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의의 두 사건이 우연한 계기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으며, 전혀 연관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들을 원인-결과로 묶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사건들을 수없이 관찰했다고 하더라도 선행하는 사건이 반드시 후행 사건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1+ 1 근거]
- 반면 <나>는 인과관계의 파악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는 인과관계의 파악이 불필요하며,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패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무한한 정보가 주어진 페타바이트 시대에서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는 곧 인과관계와 같다. 예전에는 인과모델을 통해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연결했다면, 페타바이트 시대에는 데이터 패턴이

이르는 상관관계 그 자체를 인과관계로 정의해도 되는 것이다. 이는 이항분포 $B(n,p)$ 에서 n 의 값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 $N(np,npq)$ 로 근사되는 원리와 같다. [2+ 2 근거 + 배경지식에 의한 부가서술]

- <다>는 인과관계의 파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나>와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다>는 결과가 원인과 일대일 대응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낸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의 추론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복잡계 이론이나 나비효과 이론과 같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원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3+ 3 근거 + 배경지식에 의한 부가서술]

이처럼 예시적 배경지식을 설명함으로써 김민우는 **대응의 원리**를 비교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제시문들은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와 탐구가능성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보인다. 제시문 (가)에 의하면, 우리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인과관계는 단지 '지속적 경험'에 의한 착각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인과관계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렇기에 탐구될 수도 없다. 반면에, 제시문 (나)와 (다)는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는 인정한다. 다만 제시문 (나)는 무한한 정보 앞에서 인과관계를 따로 규명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제시문 (다) 또한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는 인정하지만, 사건에 대한 우리의 정보는 언제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본다는 점이 제시문 (나)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제시문 (가)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탐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제시문 (나)는 존재하지만 더 이상 따로 규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제시문 (다)는 존재하지만 탐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열]

- 제시문 (가)에 의하면, 우리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인과관계는 단지 '지속적 경험'에 의한 착각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인과관계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렇기에 탐구될 수도 없다. [1+ 1 근거]
- 반면에, 제시문 (나)와 (다)는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는 인정한다. 다만 제시문 (나)는 무한한 정보 앞에서 인과관계를 따로 규명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2+ 2 근거]
- 제시문 (다) 또한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는 인정하지만, 사건에 대한 우리의 정보는 언제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본다는 점이 제시문 (나)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 3 근거]
- 요컨대, 제시문 (가)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탐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제시문 (나)는 존재하지만 더 이상 따로 규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제시문 (다)는 존재하지만 탐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이점에 대한 요약 정리로서 비교 마무리]

비교를 시작하며 문두에 제시하고 있는 비교기준의 정리, 깔끔한 어휘 사용과 요약정리의 마무리, 제시문의 완벽한 범주화, 개념화는 그저 논신(論神) 답다.

마지막으로 괄기연인데, 무언가 조금 다르다.

우선, 과학적 탐구 자체에 대한 인식에서 <가>, <다>는 부정적 입장, <나>는 긍정적 입장이다. <가>는 이성과 감각을 토대로 한 과학적 탐구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성과 감각이란 인간의 불완전한 경험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다>는 과학적 탐구란 한 사건에 존재할 수 있는 내러티브들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때 인과관계는 하나의 담론에 불과하다며 한계를 지적한다. 반면, <나>는 첨단 기술과 컴퓨터가 통계를 토대로 정확한 자료 분석을 가능케 하여 단순한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학적 탐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때의 과학적 탐구는 이전의 '가설-모델-실험' 으로 한정되는 좁은 의미보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인식하는 과학의 정의에 기반한다.

둘째로 인과관계에 기반한 과학적 탐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도 다르다. <가>, <다>는 불확실성을 요인으로 꼽는다. 먼저 <가>는 인간은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사고 틀을 만드는데, 이것이 단순한 선후관계의 사건을 인과관계로 확대 해석되게끔 한다고 주장한다. <다>는 인과관계 파악은 이론에 그친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원인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몇 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도 본질적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 없다. 한편 <나>는 인과관계 파악의 불필요성을 지적한다. 현대의 과학적 탐구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대한 데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만으로도 그 의미는 충분하고, 굳이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대안적 탐구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여부도 달라진다. <나>는 방대한 데이터가 시시각각 공급되는 현대사회에서는 통계 알고리즘과 같이 새로운 문제 해결 틀을 통해 상관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인과관계 탐구 과정을 대체할 것이라 언급한다. <가>와 <다>는 불확실성을 극복할 만한 대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는다.[괄기연]

우선 답을 맞추었는지의 여부부터 살펴보자.(합격자이므로 당연히 맞추었을 것이다.)

- 먼저 <가>는 인간은 불완전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사고 틀을 만드는데, 이것이 단순한 선후관계의 사건을 인과관계로 확대 해석되게끔 한다고 주장한다.[1+ 1 근거]
- 한편 <나>는 인과관계 파악의 불필요성을 지적한다. 현대의 과학적 탐구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대한 데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만으로도 그 의미는 충분하고, 굳이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없다.[2+ 2 근거]
- <다>는 인과관계 파악은 이론에 그친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원인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몇 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도 본질적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 없다.[3+ 3 근거]

이처럼, 답을 다 맞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괄기연의 답안이 다른 이유는 비교준거표를 앞뒤로 두 가지 더 사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괄기연은 앞서 설명한 '과학적 탐구', 그리고 '인과론에 기초한 과학적 탐구'의 차이점을 이용하여 좀 더 범주가 큰 다음의 비교표를 하나 더 작성하였다. 다음의 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전제 : ‘과학적 탐구’ 와 ‘인과론에 기초한 과학적 탐구’ 는 다른 개념이다.

[과학적 탐구는 이전의 ‘가설-모델-실험’ 으로 한정되는 좁은 의미보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인식하는 과학의 정의에 기반한다.]

	<가>	<나>	<다>
‘과학적 탐구’ 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가?	그렇지 않다. 과학적 탐구는 이성과 감각에 토대를 둔다. 이는 인간의 불완전한 경험의 구현일 뿐이다.	그렇다! 첨단 기술과 컴퓨터가 통계를 토대로 정확한 자료 분석을 가능케 하여 단순한 상관관계마저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 과학적 탐구란 여러 사건에 존재할 수 있는 내러티브(Narrative) 들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때 인과관계는 (여러 가지 담론 중) 하나의 담론에 불과하다.
‘인과론에 기초한 과학적 탐구’ 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가?	그렇지 않다. [주 비교표와 연결]	그렇지 않다. [주 비교표와 연결]	그렇지 않다. [주 비교표와 연결]

우선, 과학적 탐구 자체에 대한 인식에서 <가>, <다>는 부정적 입장, <나>는 긍정적 입장이다. <가>는 이성과 감각을 토대로 한 과학적 탐구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성과 감각이란 인간의 불완전한 경험의 구현이기 때문이다. <다>는 과학적 탐구란 한 사건에 존재할 수 있는 내러티브들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때 인과관계는 하나의 담론에 불과하다며 한계를 지적한다. 반면, <나>는 첨단 기술과 컴퓨터가 통계를 토대로 정확한 자료 분석을 가능케 하여 단순한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학적 탐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때의 과학적 탐구는 이전의 ‘가설-모델-실험’ 으로 한정되는 좁은 의미보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인식하는 과학의 정의에 기반한다.[곽기연]

또한, ‘대안적 탐구 방안’ 에 대해서도 비교준거표를 한 가지 더 작성하였다.

	<가>	<나>	<다>
인과론에 기초한 과학적탐구가 영터리거나, 필요없다면, 대안은?	제시하지 않음	현대의 기술에 의해 상관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인과관계 탐구 과정을 대체할 것이다.	제시하지 않음.

이에 따라 대안적 탐구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여부도 달라진다. <나>는 방대한 데이터가 시시각각 공급되는 현대사회에서는 통계 알고리즘과 같이 새로운 문제 해결 틀을 통해 상관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인과관계 탐구 과정을 대체할 것이라 언급한다. <가>와 <다>는 불확실성을 극복할 만한 대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는다.[곽기연]

이 사례를 열심히 분석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겠는데,
곽기연이라는 합격자를 만든 것은 이 두 가지 부가적 비교표가 아니다. 준비교표에 의한 정답 서술이다.
즉 결론 : 특이한 사례이니 수험생들은 따라하지 말 것!